

교황권의 마지막 전성기



종교타락의 극치, 120년(1506-1626)이나 걸린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공사비 충당을 위해 교황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판매한 면죄부를 풍자한 삽화

7.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 1452-1498)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가들이었던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는 영국인이었고, 얀 후스(Jan Hus, 1372?-1415)는 보헤미안이었지만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 1452-1498)는 이탈리아인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에 비성경적인 교훈에 대항하여 앞장 선 사람이었다.

사보나롤라는 주로 교황청의 부도덕성을 그리고 이탈리아인들의 부패한 습관과 악한 생활을 공격하였다. 그는 38세 때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시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 놓고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사이에 만연한 부도덕성을 공격했다. 성당 안에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하여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다. 그의 영향력은 증대하여 그는 도시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다.

그와 더불어 이곳에서 바로 문예부흥의 씨앗, 예술과 문학과 철학

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다. 당시 플로렌스를 지배하던 로렌초 데 메디치(Lorenzo de' Medici, 1449-1492)는 사보나롤라를 반대하였고 그의 사후 아들이 그를 계승하였으나 백성들은 그를 추방하고 만장일치로 사보나롤라를 통치자로 뽑았다. 통치권을 획득한 그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엄격한 경건생활을 시민들에게 요구했다. 그는 플로렌스 시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법이 시민의 법률이 되어 모범적인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려는 이상론에 젖어 있었다. 그는 도박, 사치스런 옷, 음란 서적, 음화, 카드, 주사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사람들은 점점 반기를 들기 시작했으며 그는 자신이 예언의 은사가 있음을 인정함으로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예언이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권위와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사보나롤라는 설상가상으로 방탕과 죄악 된 생활로 잘 알려진 새로이 교황이 된 알렉산더 6세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다.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사보나롤라를 뇌물로 매수하려 했으며 그에게 추기경의 직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보나롤라는 이를 거절하고 “나는 순교자의 면류관 이외에 다른 면류관을 원치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교황은 사보나롤라를 파문시키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문을 가하였고 종국에는 그를 투옥했다. 1498년 사보나롤라는 화형을 당했다. 그의 사형장에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후스처럼 사제의 옷을 벗기고 화형대 위에 그를 올려놓았고, 이때 군중들의 애도와 조롱 속에서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가 전투적인 지상 교회에서는 종말을 고했지만 그러나 그가 들어간 하늘의 승리 교회와 연합하게 되었다. 비록 사보나롤라의 개혁은 사회개혁에 비중을 두어 실패했지만 중세 말기에 나타날 개혁가로서 16세기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지칭되고 있다.

8. 문예부흥(Renaissance)

중세 말기에 접어들면서 교황청의 대분열과 더불어 중세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르네상스였다. 르네상스는 중세사회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온 사건이었다. 로마 가톨릭이 형성한 영적 암흑과 무지의 족쇄에 물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제적인 삶의 아름다움을 구가할 수 있는 만족감을



1497년 5월 23일 교황 알렉산더 6세에 의해 화형당한 사보나롤라
Girolamo Savonarola was burned at the stake on the orders of Pope Alexander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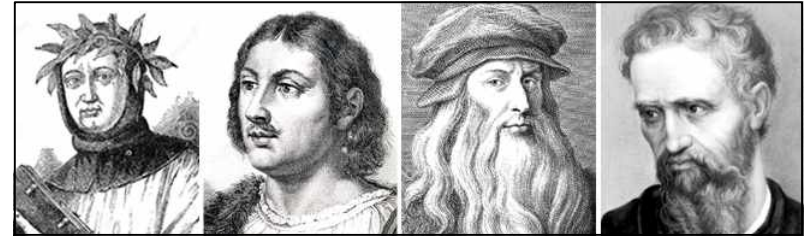
강조했다. 이는 고대의 위대한 작품에 나타난 고전적인 정신의 재평가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배경에는 세 가지 주요한 영향이 있었다.

첫째, 중세시대의 두 개의 지배 기둥이었던 교황청과 제국이 이상기류를 맞이하게 되었다. 13세기후반에는 제국의 붕괴가 있었고, 14세기 초에는 교황청의 아비뇽 이전으로 실세를 상실하게 되었다.

둘째, 십자군에 의해 발달한 유럽의 상업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되어 고도의 문화와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다.

셋째, 이탈리아의 극심한 정치 분열은 도시들에게 새로운 특성 있는 창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인들의 재능을 인정해 주고 개인주의를 잉태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도덕적, 윤리적인 부패가 신성한 기독교로부터 대다수의 중세 인들이 외면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르네상스 정신을 불러일으킨 최초의 사람은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1304-1374)다. 그는 아비뇽의 성직자 가문에서 자라났고 라틴 문학과 키케로의 저서를 부활시켰다. 그는 스콜라주의를 경멸했으며



문예부흥기 인물들(왼쪽부터)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다빈치, 미켈란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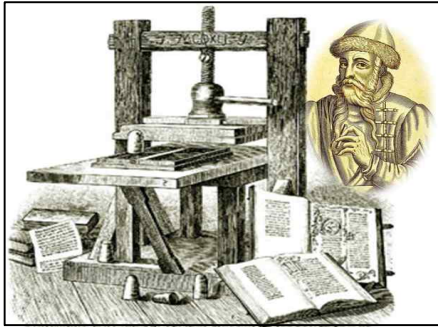
고대 문화와 문명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세계관을 불러 일으켰다.

페트라르카의 제자인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 1313-1375)는 ‘데카메론’(The Decameron, 1351)을 저술하여 교회를 공격하였고 고전 신화의 신비를 파헤치고 인문주의 연구의 폭을 넓혔다. 같은 인문주의자였던 발라(Lorenzo Valla, 1407-1457)에 의해 역사 비판주의가 소개되었고 그는 콘스탄틴의 증여문서가 위조문서임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제정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그는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여 신약 성경 연구의 기초를 놓았다.

르네상스 운동은 1450년에 마인프의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468)의 활판 인쇄의 발명으로 인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넓게 보급된 고대의 저술과 문서들에서 수많은 오류를 발견했다. 이제 사본들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존경하던 고대 문서들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라틴어로 되었던 성경(Vulgate)을 헬라어 원어로 읽고 분석하기 시작하여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종교개혁의 여명을 밝히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탈리아는 도시들마다 부(富)의 축적으로 거대한 건물들이 지어졌고 이를 예술품으로 장식하는 유행이 번져갔다. 이에 조각, 미술, 건축 등이 발달했다. 귀족과 부르주아(bourgeois)들이 예술가들을 후원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작품은 천국의 영광 대신에 재정을 지원하는 인물들을 영광스럽게 표현하는 경향으로 발전했다. 예술도 중세 기독교 정신을 벗어나 인간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켈란젤로(Michelangelo, 1475-1564),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예술작품을 통해



구텐베르크와 그가 발명한 인쇄기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표현하였고 죄악 속에 눌린 인간상이 아니라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생동적인 인간의 면들을 표현했다. 그들의 조각과 그림이 대부분이 종교적이었지만 이전에 표현될 수 없었던 보편적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 같은 르네상스 운동은 교황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르네상스의 이상을 배경으로 종교개혁 직전의 교황청은 사실 르네상스의 이상과 목표와 동일한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교황들 자신이 열렬한 예술의 후원자들이었고 예술가들을 로마로 끌어들여 아름다운 저택들과 성당들의 기념물들을 건축하였다. 그래서 로마를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로 부상시키는 데 공헌했다.

유게네 4세의 뒤를 계승한 교황 니콜라스 5세는 로마시가 유럽전체의 지성(知性)의 수도로 만들려고 당대 최고의 예술가와 저술가를 초청했다. 또 그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많은 개인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니콜라스 5세 이후에 르네상스의 이상을 구현하려 했던 대표적인 교황은 바울 2세였다. 바울 2세의 관심은 예술품, 보석, 금은 공예품 수집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사치와 향락이 절정에 달했으며 첩들이 교황청에 드나들 정도였다. 그는 로마의 고대 이교도들의 기념물들을 복고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정도로 광적인 사람이었다.

교황들의 예술과 사치에 관한 관심은 중세 말기에 대표적인 경향이었고 이러한 풍조가 최고조로 달했던 사건이 바로 거대한 성 베드로 성당(St. Peter's Basilica Scanti, 1506-1626)을 완성시키려는 야망이었다. 이를 위한 경비조달의 수단으로 무분별한 면죄부(免罪符, 大赦, Indulgentia) 강매는 결국 루터의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중세의 거센 종교개혁의 빌미가 되었다. (*) 글쓴 이 / 심창섭 (목사/교수) 출처 / 기독교 교회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04년) < 다음에 계속 >

< 다음에 계속 >